

역대급 불황에 규제까지... 시멘트 업계, 올해 전망 '더 캄캄'

작년 시멘트 내수 4360만t 불과 전년 5024만t 대비 10%이상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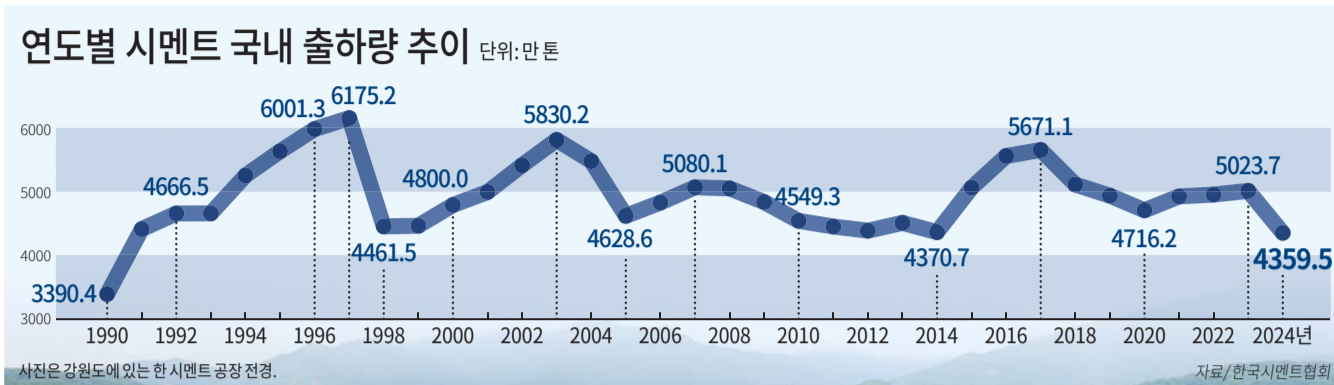
'환경 규제' 친환경 투자 늘리고 SOC 예산 줄어들어 '악재' 겹쳐 재고 쌓이고 시멘트값 하락 우려

올해 시멘트업계의 내수 출하량이 4000만톤(t)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방산업인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침체와 중소건설사 경영난, 국내 경기 침체 등 시멘트 산업 주변을 둘러싼 상황이 악화일로이다. '연간 4000만t 미만'은 내수가 199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3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멘트 내수 출하량은 4359만5000t으로, 전년도의 5023만7000t과 비교해 10% 이상 줄었다.

90년대 이후 시멘트 내수는 96년과 97년 당시 6000만t을 넘어서기도 했다. 출하량이 다소 줄긴 했지만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도 5000만t 이상을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중소건설사들의 위기도 커지는 등 시멘트 주고객인 건설업계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시멘트 수요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이와 함께 환



사진은 강원도에 있는 한 시멘트 공장 전경. 자료/한국시멘트협회

경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시멘트 회사들이 친환경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하는 등 올해 경영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일시멘트 대표로 올해 초 제31대 한국시멘트협회장에 선임된 전근식 회장은 취임사에서 "올해는 전방산업 침체로 시멘트 내수가 지난 90년대 초 이후 35년만에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갈수록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와 제조원가 상승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시멘트 업계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시멘트의 가장 대표적 전방산업인 주택시장은 올해 큰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앞서 내놓은 '2025년 주택시장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준공 물량은 33만2000호로, 지난해의 44만호(추정치)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17~2021년 평균은 52만3000호였다.

올해 예상 착공 물량은 30만호로 지난해의 26만호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2017~2021년 평균(52만1000호)과 비교하면 크게 줄

어든 양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내놓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고 부동산 규제가 여전히 주택시장 호전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전년 대비 3.6% 감소한 25조5000억원으로 책정돼 공공건설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여 건설시장의 물량 부족 현상도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지난해 환경개선 등을 위한 설비투자에 총 6076억원을 투자했다. 관련 투자는

2020년 당시 3429억원에서 4226억(2021년)→4469억(2022년)→5683억원(2023년) 등으로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시멘트사들이 배기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OC)까지 추가로 설치할 경우 투자 비용은 더 증가해 고심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가뜰이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데 투자비만 느는 것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시멘트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유연탄(동북아 5750kcal/kg 기준) 가격이 최고점인 2022년 3월 당시 t당 295달러에서 지난 1월 말 현재 99달러까지 떨어진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원화가치 하락(달러값 상승)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시멘트사들의 시멘트 총 생산능력은 연간 6000만t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 실제 국내 출하량이 4000만t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량을 아무리 줄인다고해도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되면 시멘트값 하락과 경영난 가중 등 역효과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남는 물량을 수출, 값싼 중국산 시멘트와 경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해 시멘트 수출량은 업계 전체적으로 59만8000t에 그쳤다. 이는 고작 내수의 1.4% 수준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진공, 더 나은 미래도약 전환점 삼아야”

강석진 이사장, 창립 46주년 기념사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46주년을 맞아 “더 나은 미래로도 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3일 오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창립 4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중진공의 지난 46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이사장은 “지난 4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더욱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진정



3일 오전 경남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창립 46주년 기념식에서 강석진 이사장(가운데) 등 임직원들이 떡케이크를 전달하고 있다. /중진공

으로 사랑받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은 중진공의 역사와 직원들의 인터뷰를 담은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헌신한 우수 직원들에 대한 표창식과

떡케이크 절단식 등으로 진행했다.

중진공은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향후 주요 과제로 ▲국가적·시대적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기술 혁신 지원 ▲배려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 800여곳에 ‘혁신바우처’ 190억 투입

중기부, 지역성장형바우처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2025년도 2차 공고를 내고 ‘혁신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 800여 개사에 1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혁신바우처 사업은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2차 공고는 5개 혁신바우처 사업 가운데 ‘지역성장형바우처’ 유형의 수요 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 기업과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에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 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17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40억원에서 30억원 확대된 것으로, 지역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레전드50+ 프로젝트 수가 당초 21개에서 37개로 늘었고, 참여기업 수도 500여 개사가 증가한 점을 반영했다.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은 현장평가를 면제받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등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등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창의성

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상담 및 코칭, 보육공간과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창업트렌드 등을 고려해 로컬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2가지 유형으로 나뉘 510명을 선발한다. 예비

창업자의 아이템,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기초단계에서는 사업모델 개발, 법률교육, 지식재산권 등 창업필수교육을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과 연계해 제공한다. 예비 창업자의 필요에 따라 입주 공간을 배정받게 된다.

심화과정에서는 사업화 자금, 맞춤형 특화아카데미와 상담·코칭을 진행하고 피칭대회를 통해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KCC글라스, 북미 공략 친환경 기술 선보

美 바닥재 전시회 ‘TISE 2025’ 참가

KCC글라스가 미국을 비롯해 북미 지역 추가 공략에 나섰다.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규모 바닥재 전시회인 ‘TISE 2025(The International Surface Event 2025)’에 참가해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

TISE는 매년 6만여명이 방문하는 세

계적 규모의 국제 바닥재 전시회다. 올해는 전 세계 7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공유했다.

올해로 네 번째 참가한 홈씨씨 인테리어나는 이번 전시회에서 친환경 생산 기술과 디자인 역량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특히 KCC글라스의 ‘디지털 프린팅(Digital Printing)’ 기술과 ‘바이오 필릭 디자인(Biophilic Design)’을 접목한 LVT(럭셔리 비닐 타일) 제품이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